

## 국내의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 및 향후 연구 방향\* \*\*

홍 정 민  
(동국대, 서울)

### 1. 서론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알파고로 대변되는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통번역산업은 기계와의 경쟁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기계 번역이 비용 측면뿐 아니라 결과물의 품질 측면에서도 인간을 따라잡고 있고 그 발전 속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되면서 통번역 실무자들은 커다란 불안감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위기 타개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특히 관심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문화예술 텍스트의 번역이다. 이들 텍스트는 고도로 복잡한 정신 과정의 산물로서 그 번역 역시 창의성을 지닌 인간이

더 뛰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분야 가운데서도 공연 예술, 특히 해당 시장 내 매출액 및 관객 수 비중이 가장 높은 뮤지컬(공연예술 통합전산망) 텍스트의 번역은 작업의 복잡성, 산업의 성장 속도와 가능성, 학문적 공백 등의 측면에서 산업적, 학문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

우선, 뮤지컬은 극본, 노래, 춤 등 매우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개입되는 장르로 그 번역 역시 대본 중심의 연극이나 음악 중심의 오페라 등 여타 공연예술보다 훨씬 복잡할 수 있다. 아울러, 공연예술 가운데 상업성이 가장 강한 동시에 일정 수준의 예술성도 달성해야 하는 만큼 번역 과정에 연출, 작가, 작곡가 등 창작진, 제작자, 관객 등 상당히 많은 주체가 개입하면서 수많은 고려 요소들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으며, 결과물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공연 과정에서, 또 재연을 위해 변화할 수 있다. 즉, 번역 과정이 획일화되거나 표준화될 수 없고 결과물 역시 고정된 것이 아닌 만큼 기계보다는 인간 번역사가 필요하거나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산업의 성장 속도와 가능성 역시 뮤지컬 번역의 산업적 잠재력을 뒷받침한다. 한국의 뮤지컬 산업은 2010년부터 5년 동안 연 평균 20% 가까이 성장했으며 2014년 기준 평균 관객수 및 유료 관객 비중이 67.3%로 공연 예술 장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국내 공연 예술 산업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한국 뮤지컬 산업이 이처럼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에는 해외의 작품을 한국어로 공연하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성장이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며 현재는 수익성 확대 방안으로 국내 창작 작품의 해외 진출이 각광을 받고 있다(박병성 2015; 박현주, 임대근 2016; 허은영 2013). 해외 라이선스 작품의 수입과 국내 창작 작품의 해외 진출 모두 번역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뮤지컬 번역은 산업적, 직업적 측면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지닐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셋째, 이러한 작업의 복잡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은 뮤지컬 번역의 학문적 잠재력을 시사한다. 뮤지컬 번역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0대 초 이래 2019년 현재까지 국내외 통번역학 내에서 해당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총 20여 편에 불과하다. 뮤지컬과 같은 공연예술 장르로서 역시 연구가 미흡한 연극과 오페라 번역 관련 연구에 비해서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Hübsch 2006). 다만, 최근 1-2년 사이

\* 본 연구는 2018년 4월7일 고려대학교 번역인문학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번역의 소리를 찾아서 - 뮤지컬 번역과 공연예술’ 심포지엄의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것임.

\*\* 본 연구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국내 번역학계에서 관련 학술 활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지난 2018년 4월 고려대학교 번역인문학연구원 주최로 ‘번역의 소리를 찾아서 - 뮤지컬 번역과 공연예술’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어 국내 번역학 내에서는 처음으로 뮤지컬 산업의 전문가 및 번역 전문가와 통번역 산업의 번역 실무자, 연구자, 교육자 간 활발한 만남과 토론의 장이 마련된 바 있다. 이후 개최된 2018년 봄 번역학회 학술 대회, 2019년 봄 한국통역번역학회 등 여러 학술대회에서도 관련 발표(박미영, 이지민 2018; 박천휘 2019; 이지민 2019b)가 잇따랐다. 이처럼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단기 내 양적 증가의 징후가 포착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뮤지컬 번역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본 연구는 관련 연구의 질적 발전과 번역학 내 독립적 분과 학문으로서 뮤지컬 번역 연구의 토대 마련에 있어 매우 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들 연구에서 발견되거나 지적된 한계나 공백을 중심으로 뮤지컬 번역 연구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국내의 연구 동향

### 2.1. 해외 연구

우선 해외 연구<sup>1)</sup>의 경우 구글 스칼라(Google Scholar)에서 “musical theater”, “musical play”, “translation” 등의 주제어를 다양하게 조합해 검색한 결과, 맥켈비(Mckelvey 2001)의 학위 논문을 필두로 태동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후부터 2019년 9월 말까지 총 10건이 진행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sup>2)</sup>

- 1) 해외 연구는 영어로 작성된 논문만을 기반으로 집계했다. 그 밖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도 있겠으나 전 세계에서 미국의 브로드웨이, 영국의 웨스트엔드, 호주/캐나다 등 영어권 국가의 뮤지컬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특정 시장에 한정된 특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유리 2014)을 감안할 때 영어 논문에 대한 집계는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전 세계 연구 현황을 파악하는데 가장 현실적인 접근법이라는 판단이다.
- 2) 뮤지컬 번역 연구의 경우 뮤지컬 영화나 드라마는 제외하고 공연예술로서의 뮤지컬

이들 연구는 분석의 초점을 기준으로 대사, 가사, 음악 등을 분석하는 텍스트적 접근, 원인, 효과, 영향 등 텍스트를 둘러싼 측면을 고찰하는 텍스트 외적 접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한 접근으로 나눌 수 있으며(표 1 참고) 각 접근법 별 주요 연구의 연구 주제,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및 의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해외 주요 연구

접근법	저자	제목	발간 연도
텍스트적	Franzon, Johan	Musical Comedy Translation: Fidelity and Format in the Scandinavian <i>My Fair Lady</i>	2005
	Hubsch, Jean-Frederic	Musical Theatre in Translation: A Semiotic Analysis of Jacques Brel's " <i>L'Homme de la Mancha</i> "	2006
	Franzon, Johan	Choices in Song Translation	2008
	Luft, Michaela	Translation of Musical Theatre-Using the Example of Leonard Bernstein's <i>Candide</i>	2008
	Nassiboullina, Lir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nch, English, and Russian Versions of the Musical <i>Notre-Dame de Paris</i>	2011
	Russell, Zachary Evan	Translating Broadway: the Translation of Musical Theatre into Spanish	2018
텍스트 외적	Mateo, Marta	Anglo-American Musicals in Spanish Theatres	2008
텍스트적 + 텍스트 외적	Mckelvey, Myles	Translating the Musical <i>Les Misérables</i> : A Polysystemic Approach	2001
	Zenta, Agnieszka	Yes, No Nurse! Translating a Dutch Icon for the American Musical Stage	2008
	Sorby, Stella Lanxing	Translating Western Musicals into Chinese: Texts, Networks, Consumers	2014

우선, 텍스트적 접근법 가운데 대표적인 연구는 프랜존(Franzon 2005,

번역에 대한 연구로 집계 대상을 제한했다.

2008)으로 각각 호를레이(Gorlée)의 2005년 편저 *Song and Significance - Virtues and Vices of Vocal Translation*<sup>3)</sup>와 *The Translator*가 2008년 발간한 ‘Translation & Music’ 제하의 특별호<sup>4)</sup>에 수록되어 있다. 호를레이의 단행본에 수록된 연구(프랜존 2005)는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My Fair Lady*)의 스칸디나비아어(스웨덴어, 덴마크어, 노르웨이어) 번역 전략 및 양상을 오솔소베(Osolobě, 1992a/b)의 극적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내러티브, 무대, 연출, 음악 등 다양한 형식적 요소의 관련성 속에서 번역을 고찰했다. 그는 또 노르트(Nord 1991, 1997)의 스크포스 모델을 차용해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 즉 텍스트 외적 측면에 대한 검토도 진행했다. 분석 결과, 노래 번역사들은 음악적 제약 등 다양한 형식적 요소와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 원문의 의미를 다양하게 변형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음악적 제약과 관련해서는 목표 텍스트(TT, target text)를 ‘노래로 부를 수 있도록(singable)’ 만들기 위해 일부 의미의 손실이 있더라도 발음, 압운, 시제를 수정함으로써 원천 텍스트(ST, source text)에 나타난 음악적 특징을 보존하거나 번역 과정에서 손실된 음악적 특징을 보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내러티브를 명시화 또는 일반화함으로써 무대, 연출과 좀 더 조화를 이루거나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대한 목표 문화권의 기대를 반영하려는 시도도 발견되었다. 프랜존(2005)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뮤지컬 번역에서는 ST와의 관계 및 TT의 제약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면서 ST의 제약은 “원저자가 구상한” 맥락, TT의 제약은 가장하기 쉬운 노래의 생산이며 따라서 번역을 실용적, 기능적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고 번역사는 충실성의 층위를 텍스트-의미에서 맥락적-기능적 층위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작의 의미 보존과 노래 가사로서의 기능 수행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번역을 해야 한

3) 해당 단행본에는 노래 번역 실무자 및 번역학 분야의 학자들이 작성한 8편의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공연예술로서의 뮤지컬 번역 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프랜존(2005) 1건에 그친다. 그 밖의 논문은 오페라의 리브레토(대본), 송가, 대중가요,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노래 번역 현상을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스웨덴어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언어쌍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있다.

4) 해당 특별호에도 공연예술로서의 뮤지컬 번역 현상을 분석한 연구는 프랜존(2008)과 마테오(Mateo 2008) 등 2건에 불과했다.

다는 것이다.

프랜존(2008)은 여기서 분석 대상을 확대해 다양한 음악 장르(대중 음악, 찬송가, 뮤지컬 넘버 등)의 가사를 다양한 언어(영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등)로, 다양한 목적(공연, 자막, 책 출판 등)에 따라 번역한 사례를 번역학 내 다양한 오페라 및 노래 번역 이론, 기능주의 이론을 토대로 분석했다. 아울러, 그 결과를 토대로 좋은 노래 번역의 특징인 ‘singability’<sup>5)</sup>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가사 번역 원칙을 체계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singability’를 “텍스트와 곡 사이에서 언어와 음악 간 합치(musico-verbal fit/unity between the text and the composition)”으로 정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번역된 가사와 음악이 운율적(prosodic), 시적(poetic), 의미적(semantic) 층위(layers)에서 합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운율적 층위에서의 합치는 가사와 선율(melody) 간 조화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음절 수, 리듬, 억양(intonation), 강세(stress), 노래 부르기 쉬운 소리(소리내기 쉬운 모음과 자음)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시적 층위에서의 합치는 음악의 구조와의 조화를 통해 달성되며 각운, 구문, 행, 연의 구분, 병렬과 대조, 핵심 단어의 위치 등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 의미적 합치의 경우 표현을 통해 달성될 수 있으며 내용, 분위기, 인물, 묘사, 은유 등을 통해 드러난다(2008: 373, 375, 389-97). 이 연구가 제시한 ‘singability’의 정의와 가사 번역 원칙은 이후 진행된 대부분의 뮤지컬 가사 번역 연구에서 중요한 분석 틀로 활용되고 있다.

힝쉬(Hübsch 2006) 역시 텍스트 분석 방법을 통해 뮤지컬 「맨 오브 라만차」(*Man of La Mancha*)의 번역 양상을 고찰했다. 이 연구는 1965년 뉴욕에서 초연된 해당 작품의 영어 대본 수록 넘버 3곡이 1968년 브뤼셀에서 초연된 프랑수아 공연을 위해 어떻게 번역되었는지를 고찰하고 뮤지컬 장르 번역 특유의 제약 가운데 언어와 음악 간 관계가 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는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회곡 및 오페라 번역 연구를 참고하고 언어학 내 담화 분석 가운데 동위태(isotopy)(Rastier 1972, 1987) 및 음악학 내 음악 해석(White

5) 현재 국내 번역학에서 ‘singability’는 ‘노래성’, ‘가창가능성’, ‘가창성’, ‘가화(歌化)용이성’, ‘가창용이성’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으나 통일된 번역어는 없고 관련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한 문제를 3.3.1.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므로 여기서는 특정 번역어를 명시하지 않기로 한다.

1994/2003; Tarasti 1994)에서 사용되는 개념을 통합해 분석 틀을 구축한 뒤 ST에서 가사와 음악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동위태를 분석하고 이를 TT에서 가사와 음악을 통해 형성될 수 있는 동위태와 비교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휘소 간의 관계로 가사 동위태를, 음악적 의미소(셈여림, 리듬, 박자, 멜로디, 반음 등) 간 관계를 통해 음악적 동위태를 분석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을 고찰했다. 분석 결과, ST와 TT에서 가사 동위태와 음악 동위태는 긴밀하고 효과적으로 매치되면서 동일한 동위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쉬(2006)는 이를 통해 가사 동위태가 음악적 동위태에 의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음악적 동위태가 가사 동위태에 의해 어떻게 추론될 수 있는지, 음악과 가사의 동위태가 어떻게 구축되고 긴밀히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었다. 이 연구는 뮤지컬 텍스트에는 서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기호 체계가 개입되는 만큼 뮤지컬 텍스트 내 담화를 분석할 때는 언어뿐 아니라 이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기호 체계들을 모두 고려할 필요성을 확인시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텍스트 외적 접근에서는 *The Translator* 특별호에 수록된 또 다른 뮤지컬 연구인 마테오(Mateo 2008)를 주요 연구로 꼽을 수 있다. 이 연구는 1970년대 스페인 내 영미 뮤지컬의 수입 시 ST 선정과 수용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한 것으로, ‘생산적 수용(productive reception)’, ‘사회적 연관성(social relevance)’, ‘경외(reverence)’ 등 연극학, 문화학, 화용론의 다양한 개념을 이론적 틀로 적용했다. 분석 결과, 영미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1970년대 번역을 통해 스페인 뮤지컬 시스템에 도입될 때 관객 수요 및 기대, 제작 과정, 상업적, 경제적 제약 등 다양한 사회, 문화적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영미 뮤지컬은 스페인에 성공적으로 수용되고 결국 창작 작품 제작 활성화 등 스페인 뮤지컬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적 접근과 텍스트 외적 접근이 동시에 진행된 연구도 있다. 맥켈비(2001)는 뮤지컬 「레미제라블」(*Les Misérables*)의 1980년 프랑스어 ST가 1985년 영어 TT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총 4개 넘버 가사가 번역되는 양상과 원인을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고찰했다. 폴리시스템 이론(Even-Zohar 1990)과 오페라 가사 번역 이론을 분석 틀로 활용해 가사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문헌에 대한 텍스트 외적 분석을 통해 보완한 이 연

구에 따르면 「레미제라블」은 각색 과정에서 목표 문화의 규범과 관습을 따랐으며 특히 가사 번역 시 리듬과의 조화나 이해용이성 제고를 위해 번안을 택하는 등 과감한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금까지 이뤄진 해외 연구를 종합하면 연구 주제는 번역 전략 및 양상, 번역 전략 및 양상과 원인, ST 선정 및 수용 원인, 관련 개념 및 이론 등이었고, 연구 대상은 입말, 자막, 책 출간용 번역, 모국어에서 외국어, 외국어에서 모국어로의 번역 등이었다. 특히 가사 번역 이론, 희곡 및 오페라 번역 이론, 폴리시스템 이론 등 번역학 뿐 아니라 화용론, 담화 분석 이론 등의 언어학, 나아가 음악학, 기호학, 연극학, 오페라학, 문화학, 사회학 등 다양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구축하고 논의를 진행함으로써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좀 더 정확하고 다층적으로 반영하고 관련 현상을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고자 했다. 다만, 연구 방법이 인터뷰, 설문조사 등 관련 참여자 대상의 조사 연구보다는 텍스트 분석, 문헌 검토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 2.2. 국내 연구

국내 연구 역시 양적으로는 해외 연구와 유사하다. 국내 최대의 학술정보 검색 사이트인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디비피아(DBpia)에서 “뮤지컬”과 “번역”, “뮤지컬 번역” 등의 주제어를 검색한 결과, 관련 연구를 처음 시작한 광(Kirk 2008) 이후 2019년 9월 말까지 총 12건을 찾을 수 있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텍스트적 접근과 텍스트적, 텍스트 외적 측면을 동시에 진행한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표 2 참고) 역시 각 접근법에 따라 주요 연구를 연구 주제,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및 의의 등의 측면에서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국내 주요 연구

접근법	저자	제목	발간 연도
텍스트적	Lee, Peter	Lost in Musical Translation: The Case of “Valjean’s Death” in <i>Les Misérables</i>	2011
	이성은	뮤지컬 「미스사이공」( <i>Miss Saigon</i> )의 노랫말 번역 분석	2013
	박미준, 박세리, 김지은, 권상미, 전종섭	영한 노래 번역 상의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 연구	2014
	홍정민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영향에 대한 고찰 - 지킬 앤 하이드」( <i>Jekyll &amp; Hyde</i> )를 중심으로	2017
	조성은, 홍승연	뮤지컬 「명성황후」의 공연자막 연구	2017
	홍승연	뮤지컬 자막 번역 연구: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와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2017
	이지민	가창용이성(singability) 관점에서 본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의 문제점	2019
	이지민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을 위한 실용적 지침: 가창용이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1): 145-167	2019
텍스트적 + 텍스트 외적	Kirk, Sung Hee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2008
	김영신	노래 번역, 뮤지컬 번역에 대한 소고	2014
	홍정민	제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 하임의 「스위니 토드」를 중심으로	2016
	이지민	뮤지컬 번역 연구: 오리지널 및 라이선스 뮤지컬의 번역 주제, 번역 절차와 특징, 번역 시 고려 사항 중심으로	2017

텍스트적 접근 가운데 비교적 체계적인 분석 틀을 바탕으로 고찰을 진행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성은(2013)은 로우(Low 2005)의 펜타슬론(pentathlon) 원칙과 앞서 설명한 프랜즌(2008)의 세 가지 층위를 분석 틀로 활용해 2010년 한국

에서 공연된 「미스 사이공」(*Miss Saigon*) 넘버의 가사 번역 양상을 검토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사의 음절 수 변화, 박자의 강약 패턴과 음절의 강세 간 조화, 목표 문화권 관객의 기대와 수용성을 고려한 표현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번역자들은 음절 수를 양적으로 조절하는 과정에서 의미 전달에 불필요한 표현은 생략하고 축소함으로써 내재한 의미의 손상 없이 정확하고 간결한 메시지 전달을 도모하고자 했으며 강박에 강세가 들어가는 음절이 오게 하거나 축약을 통해 의미 전달에 불필요한 조사가 강세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노래의 자연스러움을 높이고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목표 문화권 관객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물 생산을 위해 상의어 및 하의어로의 대체, 문화 특정적 요소의 변안, 은유의 풀어쓰기와 관용어에 대한 유의어로의 대체 등의 전략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특정 작품 하나의 넘버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분석 틀을 조합해 체계적이고 정교한 분석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박미준, 박세리, 김지은, 권상미와 전종섭(2014)의 경우,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를 예술적 감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 이를 번역에서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번역가가 취할 수 있는 기술적 전략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전문 번역사들에게 「레미제라블」과 「미스 사이공」에 수록된 영어 넘버 총 4곡을 한국어로 번역하도록 하고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가 가창용이한 가사로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틀로는 19세기 사회심리학 내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와 칼 게오르그 랑게(Carl Georg Lange)가 발전시킨 정서 이론에서 언어적 요소를 감동의 결정소로 대상화하는 ‘감동의 대상화(objectification)’ 접근법을 활용하고 음악적 감동을 결정하는 요소로 구문과 운율의 대칭 구조를 가정해 텍스트 분석을 진행했다. 박미준 외(2014)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언어적 차이와 음악적 제약으로 인해 구문적, 운율적 대칭이 모두 있는 가사의 번역은 어렵고, 따라서 상당수 번역자들은 특히 비교적 구현하기 쉬운 구문 대칭을 살리는 방법을 선택했음을 발견했다. 또, 이를 바탕으로 원곡의 감정을 보존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을 제안했다. 즉, 노래 번역의 관행상 한 가지는 희생할 수 있고 한국 운문의 특성상 반복이 운의 역할을 대신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운율 대신 구문을 살리는 전략을 택하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원곡이 전달하는 감동을 유지하기 위해, 음운적 측면의 효과를 유지

하기 위해 다양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추상적인 개념인 ‘감동’을 결정하는 요소를 객관적으로 대상화하는 접근법을 통해 노래 번역 현상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다만, 가사 번역 현상을 논의하면서 가사와 음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이 부재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대부분의 관련 연구가 입말 번역을 주로 다루고 있는 가운데 자막 번역 양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도 진행되었다. 조성은과 홍승연(2017)은 뮤지컬 「명성황후」 공연 자막에 대한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양상을 고찰했다. 번역학 내 시청각번역(AVT, Audio Visual Translation)의 자막 번역 이론, 노래 번역 이론 등을 바탕으로 공연 자막 번역 시 중요한 충실성, 가독성, 가창용이성 달성 전략 및 양상을 분석한 결과, 공연 자막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명시화, 풀어쓰기 등, 가독성 제고를 위해서는 삭제, 의미 단순화 등의 다양한 전략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가창용이성 경우 가사를 멜로디에 맞추는 것 외에도 압운 사용이나 어휘 및 구문 반복을 통해 원곡의 리듬감을 보존하거나 나아가 강화하는 것도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뮤지컬 번역 연구 내 논의가 부족했던 자막 번역과 한국어에서 외국어로의 번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이다. 또, 자막 번역에서 가사를 멜로디에 일치시키는 것 외에도 가창용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번역학 내 뮤지컬 연구 공백을 메우는 데 기여하는 바가 크며 현재 국내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한류 콘텐츠로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매우 시의 적절한 시도이기도 하다.

홍정민(2017)은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의 번역 양상을 고찰하고 여기에 국내 뮤지컬 산업에서 유난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배우의 해석 및 외적 측면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문헌 검토와 텍스트 분석 방법을 활용해 고찰했다. 텍스트 분석의 틀로는 베이커(Baker 2006: 105-32)의 프레임 전략이, 분석 자료로는 한국어와 영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Original Sound Track)과 악보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영향력 있는 특정 배우의 해석 및 표현, 외적 특성은 관객들에게 상당한 소구력을 갖는 대표적인 지킬의 캐릭터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고 가사 역시 이러한 캐릭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번역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뮤지컬 번역에서 배우의 다양한 측면이 직간접

적으로 가사 번역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 이처럼 배우의 내적·외적 특성과 가사 번역 양상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서 해당 작품이 한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했음을 감안할 때 라이선스 뮤지컬의 성공적인 현지화를 위해서는 가사나 대본 번역 과정에서 출연 배우의 견해나 내적·외적 특성 등 배우와 관련한 다양한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배우의 영향력이라는 한국 뮤지컬 산업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번역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함으로써 한국에서 이뤄지는 뮤지컬 번역 현상을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설명하고자 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물론, 텍스트 및 텍스트 외적 측면을 함께 고찰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었다. 광(2008)의 경우 한국 내 라이선스 뮤지컬의 역사와 발전, 뮤지컬 가사 번역의 참여자, 과정 및 방법 등을 개괄한 연구로, 문헌 검토, 번역사, 작사가, 연출가, 음악감독 등과의 인터뷰, 실제 뮤지컬 가사 번역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진행했으며, 텍스트 분석 틀로는 코헨과 로젠하우스(Cohen and Rosenhaus 2006)의 작사 및 작곡 원칙을 사용했다. 이 연구는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국내 번역학 내 최초의 실증적 연구라는 의의를 지닐 뿐 아니라 뮤지컬의 역사와 같은 거시적인 측면부터 번역 방법이라는 미시적인 측면까지 다양한 측면, 번역 과정에서 공연 및 음악 지식의 중요성, 창작 작품 제작에 미친 영향, 배우나 원작의 힘, 자본 등 뮤지컬 번역의 특징적인 측면을 모두 아울러다는 점에서 관련 연구에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홍정민(2016)의 경우 뮤지컬 「스위니 토드」(*Sweeney Todd*)의 2009년 초연과 2016년 재공연에서 가사 번역의 변화 양상을 고찰하고 그 원인을 번역 과정 및 참여자, 시대적, 문화적, 사회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실제 가사 번역 양상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신문기사, 비평, 프로그램북, 영상 등에 대한 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진행된 이 연구는 번역학 내 켈리(Kelly 1992), 프렌즌(2008), 로우(2005)의 노래 번역 원칙을 통합해 음운적, 의미적 가사 분석 틀을 구축하고 음절의 수, 박자의 강약 패턴, 음의 높낮이, 발음, 언어유희, 각운 등의 번역 양상을 점검했다. 분석 결과, 호평을 받지 못했던 초연의 가사 번역에 비해 재공연의 가사는 음절의 수, 박자의 강약 패턴, 음의 높낮이, 발음 등을 통해 전달력을 높이고 언어유희, 각운 등을 목표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

식으로 현지화되었으며 이는 관객과 평단에서도 매우 좋은 평가를 받으며 긍정적으로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뮤지컬 가사의 번역 양상은 공연의 제작 방향 및 참여 주체, 공연 시점 뮤지컬 산업의 환경 및 사회적 배경 등의 텍스트 외적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 연구는 공연예술계에서 빈번하게 이뤄지는 재공연이라는 현상에 초점을 맞춰 번역 양상을 통시적으로 고찰했다는 점에서 공연예술의 특징을 좀 더 정교하게 반영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텍스트 분석과 텍스트 외적 측면을 균형 있게 점검함으로써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분석 틀이 번역학 내에 머물러 있고 텍스트 외적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분석 결과를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이지민(2017)은 번역이 필요한 뮤지컬의 개념을 정립하고 뮤지컬 번역 주체, 번역 절차와 특징, 번역 시 고려 사항을 포괄적으로 고찰했다. 이 연구는 번역 주체 인터뷰 등 기사의 문헌 연구, 뮤지컬 번역자, 뮤지컬 배우 출신의 뮤지컬학과 교수, 공연장 관련자 대상의 인터뷰 등을 통해 창작 뮤지컬, 오리지널 뮤지컬, 라이선스 뮤지컬 중 번역을 필요로 하는 뮤지컬로 범위를 오리지널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로 명확히 구분해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후, 뮤지컬 번역 주체와 그 위상, 번역 절차와 특징, 번역 시 중점을 두는 부분을 소개했다. 이 연구는 뮤지컬 번역 연구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념을 번역학의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뮤지컬 산업 종사자들과의 직접 인터뷰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뮤지컬을 둘러싼 번역 현상을 좀 더 현실적이고 정확하게 설명했다는 데 가치를 찾을 수 있다.

이들 국내 연구의 주제, 이론적 배경, 방법, 결과 및 의의 등의 측면에서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 주제는 특정 뮤지컬 작품의 번역 전략 및 양상, 번역 전략 및 양상과 수용의 원인, 번역 과정 및 참여자, 관련 개념 및 이론 등, 연구 대상은 입말 및 자막 번역, 한국어에서 영어 또는 한국어에서 영어로의 번역 등이었다. 국내 연구의 경우, 연구 방법으로 텍스트 분석과 문헌 검토뿐 아니라 관련 참여자 대상의 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번역 양상의 원인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고 번역 과정에 대한 실질적이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노력도 다수 발견된다는 점(Kirk 2008; 이지민 2017 등 참고)이 해외 연구에 비해 특

히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반면, 이론적 배경과 분석 틀이 노래 번역 이론, 충실성 이론, 이데올로기 번역 이론 등의 번역학과 일부 언어학에만 기반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측면을 좀 더 확장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가사 번역 양상을 고찰하면서 악보를 참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분석의 초점은 주로 언어적 측면에 맞춰져 있었고 표정, 움직임, 소품, 무대 등 음악 외의 비언어 기호에 대한 논의는 전무했다. 공연예술 장르인 뮤지컬에서는 언어 기호뿐 아니라 비언어 기호 역시 중요한 의미구성 요소이며 이들 간 상호 작용을 통해 메시지가 완성되는 만큼 가사 번역 과정에서도 비언어 기호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이는 뮤지컬 번역 현상을 좀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언어 측면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포함되어야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구를 살펴본 결과, 연구의 수가 부족하지만 주제, 방법, 이론적 배경 등의 측면에서 초기 연구의 기반은 정립되었으며 이제 기존의 주제, 방법, 이론적 배경 등을 좀 더 확대하고 정교화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성장 토대를 마련할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 연구는 해외에 비해 주제와 방법 측면에서 좀 더 다양한 경향을 보였다는 점이 고무적이며, 여기에 한국 뮤지컬의 산업적, 장르적 발전을 감안할 때 훨씬 다양한 주제와 방법을 발굴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론적 배경이 언어학과 번역학 내 개념 및 논의에 집중되어 해외 연구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라는 점은 한계로 보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외와 국내에서 진행되어 온 뮤지컬 번역 관련 연구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이들 연구에서 발견되거나 제시된 한계와 향후 연구 방향 등을 토대로 뮤지컬 번역 연구가 좀 더 발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연구 방향을 뮤지컬의 장르적 특수성,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 메타 연구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모색해보고자 한다. 제시되는 방향은 국내외 연구 모두에 적용될 수 있으나 기술의 초점은 국내 연구에 맞추고자 한다.

### 3. 향후 연구 방향

#### 3.1. 뮤지컬의 장르적 특수성

##### 3.1.1. 공연예술 장르로서의 특수성

뮤지컬은 공연예술 장르에 속하는 만큼 해당 장르만의 특수성을 좀 더 심도 있고 다각적으로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 출발점은 뮤지컬의 정의에서 찾을 수 있다. 아래 정의가 시사하는 바와 같이 뮤지컬은 언어뿐 아니라 음악, 연기, 춤, 의상 등 다양한 기호가 결합된 장르인 만큼 뮤지컬 번역 현상을 좀 더 정확하고 심층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언어뿐 아니라 다양한 비언어 기호에 대한 고찰이 필수적이다. 앞서 소개한 여러 연구들 역시 공연예술로서 뮤지컬의 장르적 특수성을 인식하고 관련 텍스트 번역에서도 공연성(performability), 비언어 기호 요소 등 멀티미디어적 특징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Kirk 2008; 김영신 2014; 박미준 외 2014; 조성은, 홍승연 2017; Franzon 2008; Hübsch 2006; Mckelvey 2001).

A form of theatrical performance that combines songs, spoken dialogue, acting, dance and costumes (Oxford Living Dictionary; Wikipedia)

음악을 중심으로 춤과 연극적 요소가 결합된 대중종합예술(이유리 2014)  
현대화된 음악극으로 음악, 노래, 무용을 결합한 상업적이고 대중적인 대규모 종합 무대 예술(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연구는 모두 언어 기호 또는 비언어 기호 가운데서도 음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무대, 연출 등 공연예술에 필수적인 그 밖의 비언어 기호 요소에 대한 논의는 프랜존(2005)을 제외하면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외 연구 모두 대상을 음악 외의 비언어 기호로 확대하고 언어와 비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좀 더 정교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공연예술에는 시각 기호(표정, 제스처, 움직임, 분장, 헤어스타일, 의상, 소품, 무대, 조명)와 청각 기호(단어, 어조, 음악, 음향 효과) 등의 비언어 기호가 개입되는데(Kowzan 1968), 이들은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보완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며, 항상 상호 연결되고

상호 의존적인 기표들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구조의 총체적인 영향을 통해 완전한 의미가 생성된다(Esslin 1987: 106). 예를 들어, 중립적이거나 감정이 없는 단어라도 억양, 리듬, 속도 등을 통해 드러나는 배우의 어조에 의해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거나 예상치 못한 효과를 낼 수 있고 표정은 단어를 강화하거나 약화시키거나 대체할 수 있으며 제스처는 단어와 조화를 이루거나 단어에 의해 대체될 수도, 소품(예: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문을 여는 동작) 또는 의상을 대신할 수도 있다(Kowzan 1968: 63-64). 단순한 구문이라도 다양한 표정, 제스처, 대화 상대로의 또는 대화 상대로부터의 움직임 등 동반할 경우 다양한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Esslin 1987: 65). 분장은 헤어스타일 및 의상과 결합하여 특정 시대의 인물을 나타낼 수도 있다(Kowzan 1968: 66). 공연예술이라는 장르에는 다양한 비언어 기호가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고 이들 간 상호작용이 작품의 총체적 의미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뮤지컬 현상을 좀 더 정확하고 심도 있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요소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층적 고찰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음악 기호의 경우에도 좀 더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음악적 측면을 고찰했다라도 음악 기호 자체가 아니라 구문 구조(대칭)나 음운(억양, 강세, 발음) 등 언어 기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나 음악 기호 요소 가운데서도 음절, 박자, 리듬, 멜로디 등에만 분석과 논의를 국한하고 있어 향후 연구에서는 대상 음악 기호 요소의 범위를 좀 더 확대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인다. 예를 들어, 휩쉬(2006)와 같이 음악 해석 이론을 활용해 장조 및 단조, 반음, 불협화음 등 그 밖의 음악적 의미소를 포함하고 이들과 언어 기호 간 상호작용을 고찰할 경우 뮤지컬 번역 현상에 대한 좀 더 풍부한 설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러한 향후 연구 방향은 앞서 국내 연구의 한계로 지적되고, 여러 학자들의 연구에서도 제시된 이론적 배경의 확대 필요성(김영신 2014; Hübsch 2006; Mckelvey 2001)과도 맞아떨어있는 부분이다. 다양한 비언어 기호의 기능 및 이들 간 상호작용과 관련해 다른 학문 분야에서 제시된 여러 개념과 논의들을 좀 더 유연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반영하는 다학제적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 3.1.2. 뮤지컬 장르로서의 특수성

공연예술 가운데서도 오페라, 연극과는 차별되는 뮤지컬 장르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뮤지컬이라는 장르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독립된 장르로서의 인식이 약하고, 따라서 여타 공연예술 장르에 비해 관련 이론이나 연구도 적은 편이다. 뮤지컬에서 나타나는 번역 현상에 대한 연구는 더욱 적고 대부분의 연구가 오페라나 희곡 번역 이론을 근거로 분석 틀을 구축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 뮤지컬 장르의 입지가 강화되고 있고 학문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여타 공연예술 장르와의 차이를 정교하게 구분하고 뮤지컬 장르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뮤지컬과 가장 근접한 장르로 인식되는 오페라와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오페라의 경우, 번역이 주로 자막 형태로 이루어지는 반면 뮤지컬은 대사와 가사가 입말로 번역되어 배우의 입을 통해 직접 공연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노래의 중요성, 형식적 제약, 사회적 역할 등의 측면에서도 뮤지컬은 오페라와 크게 다르다. 오페라는 대사가 전부 노래를 통해 전달되는 반면(Mateo 2008: 320) 뮤지컬은 작품 전체가 노래로 진행되는 ‘성 스루(sung-through)’를 제외하면 노래와 대사가 번갈아 나오고 상호 보완적이다. 또, 오페라에서는 노래의 존재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관습과 기교의 역할이 강하고 목소리가 매우 중시된다(Mateo 2008: 320). 예를 들어, 어떤 캐릭터는 가수의 외모, 나이, 피부색, 표정 및 신체 표현, 성별보다 목소리에 의해 규정된다(Mateo 2008: 320). 반면 뮤지컬에서는 형식이나 목소리의 제약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대중성과 상업성이 좀 더 중시된다. 즉, 뮤지컬에서는 오페라에서보다 노래와 대사의 상호작용이 중요하고 다양한 목소리로 인한 해석의 다양성이 존재하며 형식적 제약은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중성과 상업성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고 과감한 번역이 허용되고 때로는 권고될 수 있다.

또, 뮤지컬의 장르적 특수성 관련 연구는 뮤지컬의 번역 양상을 여타 공연예술 장르 또는 공연예술 외의 장르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하는 연구로도 발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원작을 바탕으로 하는 오페라 또는 연극과 뮤지컬 간 번역의 차이, 오페라 또는 연극을 원작으로 하는 뮤지컬에서 번역의 양상 또는 변화, 소설, 영화, 드라마, 만화 등이 뮤지컬로 또는 뮤지컬이 이들 장르로 각색되는 과정에서 번역의 양상 또는 변화 등을 분석해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

서 뮤지컬 번역만의 특징이 좀 더 정교하게 드러날 수 있다.

### 3.1.3. 뮤지컬 장르 내 세부 요소의 특수성

뮤지컬 장르 내 세부 요소의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하위 장르 별 특징(쇼 뮤지컬, 북 뮤지컬, 댄스 뮤지컬, 락 뮤지컬, 블록버스터 뮤지컬, 주크박스 뮤지컬)(김신혜 2012: 20-21), 작품 속 각 넘버의 유형 별 특징(스토리 전개: 오프닝 넘버, 익스포지션, 프로덕션 넘버/리드송/테마송, 리프라이즈(reprise), 쇼 스톱퍼 송(학문명백과), 인원 수: 솔로, 듀엣, 앙상블, 합창 등) 등을 고려할 경우 연구가 좀 더 풍부하고 정교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작품을 이끄는 노래인 ‘테마송’, 극 전체에 통일감을 주고 테마송의 등장을 유도하는 ‘컴퍼니 송’, 극의 긴장을 완화시켜주고 뮤지컬의 재미를 느끼게 하는 ‘쇼 스톱퍼’ 등(학문명백과)이 각각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방향으로 번역되는지를 고찰할 수도 있고,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특정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앞서 나온 멜로디가 나중에 다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리프라이즈’의 번역이 서로 통일성 또는 연결성을 지니는지를 점검해보는 것도 가능하다. 이처럼 뮤지컬 장르 내 각 세부 요소들의 특징을 세밀하게 반영한 연구까지 더해질 경우 뮤지컬 번역 연구는 좀 더 풍부해지면서 독립적인 학문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 3.2.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

뮤지컬은 대중성, 상업성이 강한 만큼 해당 산업의 특성도 장르적 특수성 못지않게 번역 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산업의 특성은 특히 ST의 선정 과정에서 TT의 최종 생산에 이르는 좀 더 광범위한 제작 과정 전반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위해 반드시 고찰해야 할 측면이다. 한국 뮤지컬 산업의 경우에는 관객과 배우의 영향력, 해외 진출, 특정 소재와 장르의 유행 등 크게 세 가지를 가장 두드러지는 특성으로 꼽을 수 있다.

### 3.2.1. 주요 관객층 및 배우의 영향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상업적, 대중적이며, 특

히 국내 문화산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뮤지컬 제작 과정에서는 상업적 측면이 특히 중요한 고려 요소다. 콕(2008)이 뮤지컬 번역가는 공연성, 수용성(acceptability)과 함께 시장성(marketability)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 역시 뮤지컬 번역에서 상업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특히 상업성이 관객의 관심도 및 긍정적 수용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뮤지컬 번역에서는 관객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인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주요 관객군의 특성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중요하다. 한국의 뮤지컬 산업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관객은 20-30대의 여성, 반복 관람객, 해외 관광객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들 관객은 배우의 캐스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지혜원 2012; 차윤미 2014; 최승연 2009, 2013; New York Times, 2013. 12. 7; Oh and Kim 2014).

우선, 젊은 여성 관객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젊고 외모가 뛰어난 남자 배우를 전면에 내세운 작품이 대부분이다. 또, 동일한 관객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반복적 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하나의 배역에 여러 명의 배우를 캐스팅(더블·트리플·쿼드러플 캐스팅)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객이 주로 중년층이며 하나의 배역을 한 명의 배우가 맡아 모든 회 차를 책임지는 것이 일반적인 브로드웨이 등 서구와는 상황이 매우 다른 것이다(지혜원 2012: 127). 이처럼 특정 연령대 및 성별의 관객군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다 반복적으로 관람을 하는 상황은 이들 관객군의 지지를 받는 배우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해당 관객군을 유도하는 순환 고리를 형성한다. 이는 번역 역시 이러한 순환 고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 관객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작 방향이나 영향력 있는 남자 배우의 신체적 특징 및 캐릭터 해석에 따라 뮤지컬 대사와 가사 번역이 달라지는 양상이 확인되었음을 감안할 때(이지민 2017; 홍정민 2016, 2017) 한국의 뮤지컬 번역 현상을 논의하는 데 있어 이들 관객의 특성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류의 영향으로 급격히 유입되고 있는 해외 관람객 역시 번역 현상 연구에 있어 중요하게 감안해야 할 관객군이다. 지난 2010년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출신 김준수가 출연한 「모차르트」(Mozart) 이후 한류 아이돌이 출연하는 뮤지컬을 보기 위해 한국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급격히 증가하면서(이유리 2014)

2010년 인터파크를 통해 뮤지컬 티켓을 구매한 외국인 관객은 전년 대비 15% 증가했다. 일본인 관객이 많은 「잭 더 리퍼」(Jack the Ripper)의 경우 2010년 외국인 관객 수가 전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했고 점유율도 약 1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경향신문, 2011. 6. 15). 이에 따라 해외 관객의 비중이 높은 작품들은 외국어로 된 자막이나 안내문을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관객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경향신문, 2011. 6. 15) 해외 관람객을 위한 일본어나 중국어로의 자막 번역 현상 연구 역시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징을 정확히 반영하는 시도로서 가치가 있다는 판단이다.

### 3.2.2. 해외 진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 관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여러 제작사들의 해외 진출도 가속화되고 있다(경향신문, 2011. 6. 15; 박병성 2015: 172; 박현주, 임대근 2016: 258; 이유리 2014). 이 과정에는 작품의 가사와 대사는 물론 그 밖의 텍스트에 대한 외국어로의 아웃바운드(outbound) 번역이 개입될 수 있으므로 관련 현상 역시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연구 주제다. 뮤지컬 작품이 해외에 진출하는 과정에서 각 작품의 가사와 대사는 어떻게 변화하며 이는 음악, 동작, 무대, 조명, 배우 등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여기에는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뮤지컬의 해외 진출이 다양한 유형으로 이뤄지는 만큼 각 유형 별 특성 또는 유형 간 차이를 세부적으로 반영해 연구의 정교성을 높일 필요도 있다. 뮤지컬의 해외 진출은 크게 창작 뮤지컬의 투어 공연, 창작 뮤지컬의 공연권 수출 및 현지 공동 제작,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의 투어 공연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42). 창작 뮤지컬의 투어 공연은 국내 배우들이 해외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으로 입말 번역이나 자막 번역이 필요할 수 있는 반면, 창작 뮤지컬의 공연권 수출 및 현지 공동 제작의 경우 현지 배우를 포함한 해외 제작진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우를 위한 가사와 대사의 입말 번역뿐 아니라 제작진을 위한 대본의 지문, 악보 등 다양한 텍스트에 대한 번역도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세 번째 유형, 즉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의 투어 공연은 해외에서 수입한 작품을 한국어로 번안하고 재해석해 현지화한 버전을 다시 또 다른 해외로

수출하는 중계무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42-43)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의 한국 버전 재창작과 한국 버전의 해외 역수출’로 지칭할 수 있다(박현주, 임대근 2016: 259, 263). 이러한 유형은 이미 해외에서 검증 받은 작품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투자 유치 및 흥행 성공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뿐 아니라 공연권의 선점 가능성 확대와 한국 버전 저작권의 획득 등의 부가적 이익 확보, 나아가 작품과 인력 및 라이선스의 수출이라는 해외 진출 방식의 다변화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 최근 제작사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박현주, 임대근 2016: 253-63). 실제로, 미국의 「올 슈 업」(*All Shook Up*)과 체코의 「햄릿」(*Hamlet*)은 국내 제작사가 라이선스료를 받고 일본에 수출했으며 「삼총사」(*The Three Musketeers*), 「쓰릴 미」(*Thrill Me*) 등은 한국 버전으로 아시아 공연권을 선점했다(박현주, 임대근 2016: 259, 263). 이러한 과정에서 이뤄지는 번역에 대한 연구는 이처럼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징을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점뿐 아니라 해외 라이선스 작품을 국내로 들여와 한국의 문화에 맞게 변형한 뒤 다시 해외로 수출하는 두 번의 중재 과정을 거치는 좀 더 복잡한 현상을 고찰함으로써 다양한 문화권과 해당 문화권의 뮤지컬 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한국의 문화와 관객의 기대 및 수요에 맞는 적극적 현지화를 통해 흥행에 성공한 뒤 해당 버전을 수출한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 버전의 재창작 과정에서는 원작의 어떠한 요소들이 변형되며 여기에는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한국 버전이 다시 해외 시장으로 역수출될 때는 변형된 요소들이 다시 어떠한 변화를 거치는지, 이처럼 다시 변형된 요소들은 수출된 문화권의 관객들에게는 어떻게 수용되었는지 등을 고찰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도 대사와 가사뿐 아니라 음악, 동작, 무대, 의상, 조명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결과의 타당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미국의 「올 슈 업」은 원작의 대본은 물론 무대 의상도 대폭 수정했으며 수정된 한국 버전은 완성도에서 원작보다 더 낫다는 평가 함께 일본에 수출됐다(동아일보, 2008. 6. 26). 해외 라이선스 작품 가운데 현지화 성공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지킬 앤 하이드」의 경우, 브로드웨이에서는 흥행과 작품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반면 한국에서는 지난 2004년 초연 후 2019년까지 총 아홉 차례 재공연되면서 누적 공연 횟수 1,100회, 누적 관객 수 120만 명, 평균 유료 객석 점유율 95% 등의 압도적인 기록을 세웠는데 국내

관객의 정서를 고려해 캐릭터를 변형하고 대사와 가사를 관객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감과 단어로 수정한 적극적 현지화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뉴스핌, 2018. 11. 22). 이러한 현지화의 성공을 바탕으로 제작사인 오디컴퍼니는 지난 2016년 말 브로드웨이의 기획사와 공동제작한 영어 버전을 한국에서 개막한 뒤 아시아는 물론, 유럽과 미국에 이르는 월드 투어를 진행하기도 했다(뉴시스, 2016. 12. 7; 연합뉴스, 2016. 11. 20). 특히 역수출된 작품 가운데 현지에서 흥행에 성공한 작품의 수용 사례를 분석할 경우, 성공에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번역 방향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12년 일본 진출 당시 81.5% 유료 객석 점유율, 전회 전석 기립, 입석 티켓 판매 등 유례없는 진기록을 수립하며 일본에 진출한 한국 뮤지컬 사상 최고의 흥행 기록을 달성한 「잭 더 리퍼」가 적절한 분석 대상이 될 수 있다(서울문화IN, 2019. 2. 1).

### 3.2.3. 특정 장르 및 소재의 유형

개별 국가나 문화권에 따라 선호되는 뮤지컬의 장르와 소재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이러한 측면 역시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번역 연구를 위해 고찰될 필요가 있다. 한국의 경우 추리·스릴러, 남성 2~3인이 등장하는 작품, 동성애를 소재로 한 작품 등이 특히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러한 특징 역시 수입할 라이선스 작품의 선정부터 번역 양상에 이르기까지 뮤지컬 번역과 관련된 거시적, 미시적 현상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선, 미국에서는 주로 밝고 행복한 코미디 작품들이 사랑을 받는 반면 한국에서는 추리·스릴러 계열의 뮤지컬이 선호된다(동아일보, 2014. 1. 16). 인터파크의 공연 정보 데이터베이스 플레이DB에 따르면 이러한 장르의 작품들은 2007년부터 꾸준히 뮤지컬 예매 랭킹 10위 안에 들고 있으며 특히 2013년부터는 연간 2~3편씩 이름을 올리고 있다(표 3 참고).

〈표 3〉 뮤지컬 예매 랭킹 10위 내 추리·스릴러 작품 편수(출처: 플레이DB)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	1	1	3	1	0	3	3	2	3	2	2	4

이처럼 한국에서 추리·스릴러 계열 뮤지컬이 한국에서 특히 관심을 받는 이

유는 살인, 추격전 등의 이야기 자체가 강렬하고 극적인데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비극적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뮤지컬 평론가 원종원 순천향대 교수는 “한국 관객은 잔잔한 감동보다는 스토리의 진폭이 큰 작품을 좋아한다. 좀 더 자극적이고 신선한 카타르시스를 원한다”고 설명했고(한겨레, 2015. 3. 4) 뮤지컬헤븐의 박용호 대표는 “한국인들은 죽음의 미학, 감정의 과잉 표출에 심취하는 경향이 있다.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증오심을 스틸러를 통해 대리 분출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말했다(동아일보, 2014. 1. 16). 이러한 장르의 유행과 이에 영향을 미친 관객의 특성은 가사나 대사 번역 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스틸러 뮤지컬 「스위니 토드」를 분석한 홍정민(2016: 228)은 번역된 가사에 원문보다 강렬하거나 자극적인 표현, 비속어, 강한 발음 등이 자주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기에는 해당 장르의 유행으로 뮤지컬 관객들이 잔인하고 엽기적인 소재의 작품에 익숙해지면서 노골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수용도 역시 강화된 것이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한국 뮤지컬 산업은 라이선스 뮤지컬의 성장에 힘입어 비약적으로 발전한 만큼 이들 장르 및 소재의 유행을 라이선스 작품과의 관련성 속에서 고찰해보는 연구는 문화적, 사회적으로 좀 더 광범위한 함의를 지닐 수 있다. 2.1.에서 소개한 마테오(2008)는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가 없던 1970년대 스페인의 뮤지컬 시스템에 영미 뮤지컬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번역을 통해 도입되고 성공적으로 수용된 후 결국 창작 작품 제작 활성화 등 스페인 뮤지컬 산업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과정을 고찰했다. 한국의 뮤지컬 산업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2007년 국내에서 초연한 「쓰릴 미」는 반복 관람객을 중심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이와 유사한 컨셉의 창작 소극장 뮤지컬이 잇따라 제작되는 계기를 제공했다(박병성 2015: 142). 이 작품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전대미문의 유괴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남성 2인극으로, 국내 초연 이후 2017년까지 열 차례 재공연되는 등 대표적인 흥행작으로 자리 잡았다(박병성 2015: 138; 조이뉴스24, 2017. 3. 19). 「쓰릴 미」의 흥행 이후 드라큘라와 프로페서V가 등장하는 남성 2인극 *마마, 돈 크라이 (Mama, Don't cry)*, 난해한 이야기 구조와 다양한 상징을 부여해 관객들에게 해석을 열어둔 2인극 「트레이스 유 (*Trace U*)」 등 유사한 소재와 형식의 창작 작품이 급증했는데, 이들은 모두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객들을 참여시킨다는 점, 멀티 캐스

팅으로 꽤어마다 다른 재미를 준다는 점, 외모가 뛰어난 젊은 남성들의 동성애 코드를 활용한다는 점 등 「쓰릴 미」의 흥행을 견인했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담고 있다(박병성 2015: 142-43). 이러한 현상은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 작품이 번역되어 한 국가의 뮤지컬 시스템에 소개되고 성공적으로 수용되면서 해당 국가의 창작 뮤지컬 시스템 내 제작 경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폴리스시스템(Even-Zohar 1990)의 관점에서 연구해볼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이 작품이 동성애, 유아살인 등 사회적으로 금기시되는 소재들을 다루고 있는 만큼 해당 소재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이는 실제 공연에서 음악, 동작, 의상 등의 요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여기에는 어떠한 요소들이 영향을 주었는지 등을 통해 작품이 성공적으로 한국 뮤지컬 시스템에 수용되고 안착할 수 있었던 요인을 탐구해볼 수도 있다.

이 작품은 또 라이선스 뮤지컬이 창작 뮤지컬에 미친 영향뿐 아니라 전술한 한국 뮤지컬 산업의 두 가지 특징, 즉 관객의 특징과 재창작 및 역수출 현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종합적으로 고찰해볼 수 있다. 「쓰릴 미」는 한 작품을 반복해서 보는 관객을 일컫는 ‘회전문 관객’을 양산한 첫 작품이자 2010년 공연에서는 2회 이상 재관람한 관객들이 2,447명에 달하는 등 반복 관람의 비중이 매우 높은 작품인 만큼(박병성 2015: 140-41) 금기시되는 소재 등의 번역에 영향을 주는 주된 요소로 이들 관객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이 작품은 2005년 오프 브로드웨이 초연 당시 대중적으로 큰 호응을 받지 못한 반면 한국에서는 2007년 초연부터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초연 흥행에 힘입어 2008년 그리스, 2010년 호주, 2012년 브라질, 2013년 캐나다 등 해외에서도 잇따라 공연되었다(박병성 2015: 136). 특히 2011년에는 한국 버전으로 일본에서 공동 제작되었고 전회 매진을 기록했다(박병성 2015: 138). 이는 성공적인 현지화와 역수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이 과정에서의 번역 양상에 대한 고찰은 향후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위한 번역 방안 모색에도 유용한 단서를 제공해줄 수 있다.

### 3.3. 메타 연구

2.에서 알 수 있듯 지금까지 진행된 뮤지컬 번역 연구는 현상 분석에 초점을 맞춘 실증적 연구가 주를 이뤄왔는데 독립적 학문으로서 뮤지컬 번역 연구

가 좀 더 체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메타 연구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학문적 토대가 되는 용어 및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절차의 타당성과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연구 방법의 정교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3.3.1. 뮤지컬 번역 관련 용어 및 개념 정립

뮤지컬 번역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고 자주 언급되는 일부 용어를 통일하고 그 개념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번역학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서는 번역 현상을 기술하고 설명하기 위한 전문 용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해당 전문 용어에 타당한 정의를 부여하는 한편 학자들로 하여금 학문 내적으로 합의된 전문 용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정호정 2010: 238).

우선, 뮤지컬 번역에서 좋은 번역의 기준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singability’에 대한 정확한 번역어를 결정하고 통일성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 용어는 오이티넨(Oittien 1995/2006: 93)이 처음 제시한 것인데, 국내 번역학에서 뮤지컬 번역이나 가사 번역에 대한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관계로 해당 용어에 대해서는 통일된 번역어가 없고 학자마다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김영신(2014)과 조성은과 홍승연(2017)은 ‘노래성’, 박미준 외(2014)는 ‘가창가능성’, 성승은(2013)과 김세현(2016)은 ‘가창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으며 이성은(2014)과 홍정민(2016)은 이를 ‘가화(歌化)용이성’으로, 이지민(2019)은 ‘가창용이성’으로 번역했다.

이 가운데 가장 적절한 용어를 결정하는 데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는 그 출발점으로서 이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한 단서를 특정 전문 주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연구 방법인 ‘일반 전문 용어학 이론(General Theory of Terminology)’의 원칙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특정 전문 주제 분야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은 해당 용어가 대표하는 개념을 고정하고 경제성(해당 용어의 다른 이름에 비해 형태적으로 더 짧거나 단순한 용어), 투명성(해당 용어의 다른 이름에 비해 정확성이 높은 반면 애매모호함은 더 적은 용어), 적합성(해당 용어의 다른 이름에 비해 기존의 사용범위가 더 넓게 분포되어 있는 용어)의 원칙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Bowker 2009, 정호정 2010: 253에서 재인용). 간단히 말하면, 특정 개념을 정확히 반영

하고 형태적으로 간결하며 별다른 설명 없이 그 자체만으로 해당 개념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좀 더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용어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번역어의 의미와 해당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자. 각 학자들이 사용한 번역어의 의미를 그대로 옮길 경우 ‘노래성’은 노래로서의 속성을, ‘가창가능성’은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가창성’은 노래로 부를 수 있는 속성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가화용이성’과 ‘가창용이성’의 경우 노래로 부르기 쉬운 속성을 나타낸다. 이들 용어가 해당 개념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여러 학자들이 제시한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로우(2003: 93, 192-94)는 “번역된 가사의 음성적 적합성(phonetic suitability of the translated lyrics)”, 즉 특정한 음에 맞춰 노래를 부르기 쉬운 단어를 배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프랜즌(2008: 373)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텍스트와 곡 사이에서 언어와 음악 간 합치(musico-verbal fit/unity between the text and the composition)”으로 정의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번역된 가사와 음악이 운율적(prosodic), 시적(poetic), 의미적(semantic) 층위(layers)에서 합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성은과 홍승연(2016: 165)은 노래 가사 번역시 원곡의 멜로디를 고려하여 멜로디에 노래 가사를 일치시켜야 함을 뜻한다고 설명했고 박미준 외(2014: 181)는 음표와 음절의 연결성, 단어의 유사성, 운율과 격조의 유지 등 미시적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학자들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모두 해당 개념을 ‘좋은 노래 번역의 기준’으로 인식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단순히 ‘노래로 부를 수 있는’이라는 가능성의 측면보다 ‘노래로 부르기 쉬운’이라는 가치판단의 측면이 포함된 ‘가화용이성’, ‘가창용이성’ 등의 번역어가 좀 더 적절해 보인다. 다만, ‘가화용이성’의 경우 희곡 번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책을 읽기 좋고 듣기 좋게 함으로써 대사가 청중에게 분명히 전해질 수 있는 성질 또는 정도를 의미하는 ‘가화성(可話性)’, 즉 ‘speakability’(Snell-Hornby 1988: 25; 2006: 85)와 혼동될 여지가 있어 ‘歌化’라는 한자어를 첨가해 별도로 설명해야 의미 전달이 명확해진다는 점, ‘가창용이성’의 경우 간결성이 떨어지며 ‘공연성’, ‘가화성’ 등의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번역어와의 형태적 통일성이 약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만, 본고는 통일된 번역어를 제시한다기보다 번역어의 통일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적절한 번역어를 결정하는 기준을 논하는 데 있으므로 그 이상의 세부 논의는 후속 연구로 남겨두고자 한다.

둘째로, 번역이 개입되는 뮤지컬의 용어와 개념에 대한 정립도 필요하다. 번역이 개입되는 뮤지컬을 지칭하기 위해 현재 가장 자주 사용되는 용어에는 ‘번역 뮤지컬’과 ‘라이선스 뮤지컬’이 있는데 학계에 따라 해당 용어의 개념에 차이가 있다. 우선 공연예술학계에서 ‘라이선스 뮤지컬’은 외국의 대본과 음악을 기반으로 한국어로 공연되는 뮤지컬을 일컫는 용어로서 외국의 공연 팀이 한국에 방문해 투어 형태로 공연하는 ‘오리지널 뮤지컬’, 한국에서 음악과 대본 혹은 음악을 순수하게 창작하는 ‘창작 뮤지컬’과 대비되는 개념을 나타낸다(김균형 2009: 262; 박현주, 임대근 2016: 256). ‘라이선스 뮤지컬’은 또 1987년 세계 저작권 협회 가입과 1996년 베른협약의 영향으로 정식 라이선스를 획득한 해외 뮤지컬이 국내에서 공연되기 시작한 2000년대 이후 정식 라이선스 계약에 의해 공연되는 작품을 지칭하기도 하는데 이에 앞서 라이선스의 구입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기 전에 공연된 작품들을 ‘번역 뮤지컬’로 부른다(박현주, 임대근 2016: 256).

하지만 번역학계에서는 이러한 ‘라이선스’라는 용어가 지닌 함의에 대한 인식 없이 ‘번역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공연예술학계에서 지칭하는 ‘라이선스 뮤지컬’과 동일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으로 혼용 또는 대체해 사용하고 있다(Kirk 2008; 이지민 2017; 조성은, 홍승연 2017 등 참고). 번역학이 다학제적 학문인 만큼 다른 학문 분야에서 이미 정립되어 있는 개념과 용어를 사용할 때는 기존의 개념과 용어를 따르거나, 혼동의 여지가 없는 개념과 용어를 새롭게 제시하거나, 해당 학문 분야와의 논의를 토대로 개념과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번역학계에서 사용되는 ‘번역 뮤지컬’이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개념 자체도 번역이 개입되는 뮤지컬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지민(2017)은 외국의 공연 팀이 한국에 방문해 투어 형태로 공연하는 ‘오리지널 뮤지컬’ 역시 자막을 통해 대사과 가사를 번역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번역 뮤지컬’에 포함해야 한다며 ‘오리지널 뮤지컬’과 ‘해외 라이선스 뮤지컬’의 개념을 합해 ‘번역 뮤지컬’로 지칭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뮤지컬 번역 연구에 필요

한 용어를 번역학의 관점에서 정의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또, 이러한 개념 정의는 한국어로 번역되어 공연되는 ‘라이선스 뮤지컬’에 번역이 자막으로 제공되는 ‘오리지널 뮤지컬’까지 번역이 필요한 뮤지컬의 범위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도 공연예술학계에서 사용되는 ‘번역 뮤지컬’과의 혼동을 막기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 3.3.2. 연구 방법의 정교성 및 신뢰성 제고

절차의 타당성과 결과의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구 방법의 정교성과 신뢰성 제고 노력이나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분석 대상 텍스트 및 통계 자료 출처 및 수집 방법을 확대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뮤지컬 대본이나 가사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판매되거나 공개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대부분이 개인적 친분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대본, 악보 등을 입수하거나 공연장 등 제한적인 창구를 통해 판매되는 프로그램북, 가사집, 대본, OST 등을 참고하는 정도였다. 이들 모두 일반 연구자에게는 접근 가능성이 낮은 경로로, 뮤지컬 번역 연구를 활성화하고 논의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자료 수집 출처를 마련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해당 자료가 창작물인 만큼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이는 모두 개별 연구자보다는 번역학계 전체, 나아가 관련 업계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

뮤지컬 통계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각종 공연 실태 조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연감, 국내 대표 공연 티켓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등 다양한 주제와 형태로 발표되었으며 각 발표 주체가 개별적으로, 다양한 주기로 제공해왔기 때문에 연구 등을 위해 필요한 공연 시장 전체 통합 데이터가 부재했다(더뮤지컬, 2017. 12). 예를 들어,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기존 실태 조사는 공연 단체의 실적 보고를 근거로 작성하기 때문에 시의성이 1~2년 정도 뒤처진다(더뮤지컬, 2016. 11). 또, 여러 연구들이 티켓 판매 순위 통계 파악을 위해 자주 참고하는 인터파크의 통계는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는

점(한국경제, 2019. 3. 27)을 감안하더라도 공연 시장의 현황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2019년 6월25일부터 뮤지컬, 연극, 무용, 국악 등 분야별 공연정보를 영화와 같이 한눈에 볼 수 있는 공연예술통합전산망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좀 더 공신력 있고 통합적인 데이터 접근이 가능해졌다(아시아경제, 2019. 6. 25). 특히 모든 분야의 티켓 예매처, 공연기획·제작사, 공연 단체 등으로부터 자료가 매일 의무적으로 전송되어 갱신되므로 산업의 현황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반영한 데이터의 확보가 가능해졌다. 또 각 공연 분야의 특성을 반영, 분야 별로 공개하는 정보 및 방식을 차별화해 연극, 무용, 국악 등은 우선 예매율만 공개하는 반면 뮤지컬은 공연 별 관객 수와 매출액, 예매율 등 세분화된 공연정보를 공개하는 만큼(아시아경제, 2019. 6. 25) 뮤지컬 관련 연구에 있어서는 좀 더 정교한 데이터 확보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다양한 자료의 출처 및 수집 방법 가운데 가급적 신뢰성 높은 출처 및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절차의 타당성과 결과의 설득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 4. 나가는 말

기계 번역의 발전에 따른 위기로 현재 통번역업계와 학계가 다양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적, 학문적 잠재력이 매우 높은 뮤지컬 번역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를 양적, 질적 측면에서 고찰하고 이들 연구에서 발견되거나 지적된 한계나 공백을 중심으로 향후 나아가야 할 뮤지컬 번역 연구의 방향을 뮤지컬의 장르적 특수성, 한국 뮤지컬 산업의 특성, 메타 연구 등 세 가지 측면을 중심으로 모색해보았다. 특히 국내 연구의 경우, 해외에 비해 이론적 배경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다른 학문과의 다학제적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 제시된 방향이 뮤지컬 번역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측면을 아우르는 못할 것이나 최근 국내 번역학계에 나타나고 있는 관련 연구 활성화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고 독립적 분과 학문으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논의의 출발점으로서 충분히 가치를 지닐 것이다. 한국의 뮤지컬 작품들이 활발한 해외 진출을 통해 또 다른 한류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국내 뮤지컬 번역 연구 역시 이러한 방향을 출발점으로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을 도모한다면 국내 번역학 내에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는 것은 물론 전 세계 번역학 내에서도 관련 연구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http://www.kopis.or.kr/por/stats/perfo/perfoStatsCate.do?menuId=MNU\\_00030&searchWord=&searchType=total#none](http://www.kopis.or.kr/por/stats/perfo/perfoStatsCate.do?menuId=MNU_00030&searchWord=&searchType=total#none)
- 권수현 (2016. 11. 20) 「‘지킬 앤 하이드’로 아시아 겨냥…한국 뮤지컬 새 길 연다」. 『연합뉴스』, 2018년 11월 17일 검색.
- 김균형 (2009) 「한국 라이선스 뮤지컬의 현실과 개선에 대한 연구」, 『공연문화 연구』 18: 257-282.
- 김세현 (2016) 『뮤지컬 애니메이션 노래 번역 전략 고찰 - <겨울왕국>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신혜 (2012) 『스티븐 손드하임의 컨셉 뮤지컬과 컴퍼니 작품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해설집.
- 김양수 (2017. 3. 19) 「10주년 ‘쓰릴미’, 회전문 관객 사로잡은 男 2인극의 매력 (종합)」, 『조이뉴스 24』, 2019년 6월 22일 검색.
- 김영신 (2014) 「노래 번역, 뮤지컬 번역에 대한 소고」, 『통번역교육연구』 12(1): 209-226.
- 김희경 (2019. 3. 27) 「공연사업 뛰어드는 카카오…인터파크 독주 제동걸까」, 『한국경제』, 2019년 6월 17일 검색.
- 디비피아(DBpia). [www.dbpia.co.kr](http://www.dbpia.co.kr)
- 뮤지컬 <잭더리퍼> 10주년, 잭 역의 신성우 연출로 새롭게 변모. (2019. 2. 1). 서울문화IN. 2019년 6월 28일 검색.
- 박미영, 이지민 (2018) 「뮤지컬 Urine Town 번역 사례 연구: 유머 번역 중심으로」, 『한국번역학회 2018 가을 학술대회 “기술혁명 시대와 번역(학) 교

육의 새 지평”, 10월 13일. 서울: 경희대학교 호텔관광대학, 136-147.

박미준, 박세리, 김지은, 권상미, 전종섭 (2014) 「영한 노래 번역 상의 구문 및 운율적 대칭 구조 연구」, 『통번역학연구』 18(3): 177-207.

박병성 (2015) 『2000년대 라이선스 뮤지컬의 산업화 양상 연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 논문.

박병성 (2016. 11) 「[MINI SPECIAL] 공연 예술 통합 전산망」, 『더뮤지컬, 제 158호』, 2019년 6월 30일 검색.

박병성 (2017. 12) 「[FOCUS] 공연예술통합전산망에 바란다」, 『더뮤지컬, 제 170호』, 2019년 6월 30일 검색.

박주연 (2011. 6. 15) 「외국인, 한국 뮤지컬 객석을 채우다」, 『경향신문』, 2019년 6월 20일 검색.

박천휘 (2019) 「뮤지컬 번역의 특수성과 노랫말 번역의 기술」, 『제27차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매체와 통번역”』, 3월 23일.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1층 대강당, 13-35.

박현주, 임대근 (2016)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공연 현황과 특징 분석」, 『인문콘텐츠』 40: 253-269.

성승은 (2013) 「아동문학 번역 연구동향과 과제」, 정호정 (편저), 『통번역학 연구 현황과 향후 전망 1』, 서울: 한국문화사, 169-200.

손효림 (2014. 1. 16) 「강렬한 스토리… 男주인공 카리스마… 스틸러 뮤지컬 뜬다」, 『동아일보』, 2018년 5월 17일 검색.

예술경영지원센터 (2015) 「2015년 공연예술실태조사(2014년 기준)」,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6월25일 검색.

예술경영지원센터 (2019. 2).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월간리포트 (2019년 1월)」,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6월28일 검색.

유선희 (2015. 3. 4) 「스틸러 뮤지컬’ 소름 돋는 대박 행진」, 『한겨레』, 2018년 11월 17일 검색.

유성운 (2008. 6. 26) 「[공연] 해외원작 한국뮤지컬 국제무대로 역수출」, 『동아일보』, 2019년 6월 25일 검색.

이성은 (2013) 『뮤지컬 <미스사이공>의 노랫말 번역 분석』,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구.

이유리 (2014) 「한국 뮤지컬 산업 현황과 해외 진출 방안」,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 창작 뮤지컬 국제 심포지엄 “국내·외 뮤지컬 시장 현황과 창작 뮤지컬의 해외 진출 방안”』, 2월 5일. 대구: 대구경북연구원 18층 대회의실.

이재훈 (2016.12. 7) 「[지킬앤하이드 월드투어 ①] 신춘수 “뮤지컬 콘텐츠 세계화 반드시 필요」, 『뉴시스』, 2018년 11월 15일 검색.

이지민 (2017) 「뮤지컬 번역 연구: 오리지널 및 라이선스 뮤지컬의 번역 주체, 번역 절차와 특징, 번역 시 고려 사항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1(3): 137-160.

이지민 (2019a) 「가창용이성(singability) 관점에서 본 국내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의 문제점」, 『통역과 번역』 21(1): 85-108.

이지민 (2019b)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의 문제점」, 『제27차 한국통역번역학회 봄 정기학술대회 “매체와 통번역”』, 3월 23일. 서울: 한국의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1층 대강당, 49-52.

이지민 (2019c) 「라이선스 뮤지컬 가사 번역을 위한 실용적 지침: 가창용이성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21(1): 145-167

정호정 (2010) 「번역과 전문용어학, 전문용어학과 번역학」, 『통역과 번역』 12(2): 235-255.

조성은, 홍승연 (2017) 「뮤지컬 『명성황후』의 공연자막 연구」, 『통번역학연구』 21(3): 161-190.

지혜원 (2012) 『브로드웨이 브로드웨이』, 서울: 이야기쟁이 낙타.

차운미 (2014) 『한국 뮤지컬로 바라본 대중문화 속 팬덤 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대열 (2019. 6. 25) 「뮤지컬·연극도 영화처럼 박스오피스 가동」, 『아시아경제』, 2019년 6월 30일 검색.

최승연 (2009) 「번역된 문화와 한국적 디코딩 - 번역 뮤지컬의 수용에 대한 일고찰」, 『한국극예술연구』 29(4): 219-260.

최승연 (2013) 「공포의 스펙터클 - 빅토리아 시대를 향한 뮤지컬의 동경 <지킬 앤 하이드>, <스위니 토드>, <잭 더 리퍼>를 중심으로」, 『한국연극학』 51: 147-179.



- 플레이DB 공연예매 랭킹. <http://www.playdb.co.kr/ranking/Ticket/TPBoxOfficeHistory.asp?KindOfGoods=01011&Flag=Y&BDate=20190101>
- 허은영 (2013) 「공연물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뮤지컬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홍승연 (2017) 『뮤지컬 자막 번역 연구: 창작뮤지컬 「명성황후」와 「지하철 1호선」을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정민 (2016) 「재공연을 통해 본 뮤지컬 가사 번역의 변화와 원인 - 손드하임의 『스위니 토드』를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특별호): 191-241.
- 홍정민 (2017) 「뮤지컬 가사 번역에서 배우의 영향에 대한 고찰 - <지킬 앤 하이드(Jekyll & Hyde)>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8(2): 255-291.
- 황수정 (2018. 11. 22) 「뮤지컬 ‘지킬앤하이드’가 써내려간 압도적인 흥행 기록들」, 『뉴스핌』, 2019년 11월 17일 검색.
- 학문명백과. 예술체육. 뮤지컬드라마.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7575&cid=44415&categoryId=44415>. 2019년 5월 24일 검색.
-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www.riss.kr](http://www.riss.kr)
- Baker, Mona (2006) *Translation and Conflict: A Narrative Account*, London/New York: Routledge.
- Bowker, Lynne (1998) ‘Terminology’, in Mona Baker and Gabriela Saldanha (eds) *Routledge Encyclopedia of Translation Studies*, London/New York: Routledge, 290-293.
- Cohen, Allen and Steven L. Rosenhaus (2006) *Writing Musical Theater*,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Even-Zohar, Itamar (1990) ‘Polysystem Theory’, *Poetics Today* 11(1): 9-26.
- Esslin, Martin (1987) *The Field of Drama*, London: Methuen.
- Franzon, Johan (2005) ‘Musical Comedy Translation: Fidelity and Format in the Scandinavian *My Fair Lady*’, in Dinda L. Gorrée (ed.) *Song and Significance: Virtues and Vices of Vocal Translation*, Amsterdam/New York: Rodopi, 263-297.
- Franzon, Johan (2008) ‘Choices in Song Translation’, *The Translator* 14(2): 373-399.

- Google Scholar. <https://scholar.google.com>
- Gorrée, Dinda L (ed.) (2005) *Song and Significance: Virtues and Vices of Vocal Translation*, Amsterdam/New York: Rodopi.
- Healy, Patrick (2013) ‘Musicals Couldn't be Hotter Off Broadway (By 7,000 Miles)’, *The New York Times*, 7 December. Available at <http://www.nytimes.com/2013/12/08/theater/musicals-couldnt-be-hotter-off-broadway-by-7000-miles.html>.
- Hübsch, Jean-Frédéric (2006) ‘Musical Theatre in Translation: A Semiotic Analysis of Jacques Brel's “L'Homme de la Mancha”’, MA dissertation, Ottawa: University of Ottawa.
- Kelly, Andrew B. (1992) ‘Translating French Song as a Language Learning Activity’, *Equivalances*, 22(1, 2) & 23(1) [Special Issue Traduire et Interpreter Georges Brassens]: 91-112.
- Kirk, Sung Hee (2008) ‘Translated Musicals and Musical Translation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9(1): 283-309.
- Kowzan, Tadeusz (1968) ‘The Sign in the Theater’ (Simon Pleasance, trans), *Diogenes* 61: 52-80.
- Lee, Peter (2011) ‘Lost in Musical Translation: The Case of “Valjean's Death” in Les Misérable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4(2): 285-311.
- Low, Peter (2005) ‘The Pentathlon Approach to Translating Songs’, in Dinda L. Gorrée (ed.) *Song and Significance: Virtues and Vices of Vocal Translation*, Amsterdam/New York: Rodopi, 185-212.
- Luft, Michaela (2008) ‘Translation of Musical Theatre-Using the Example of Leonard Bernstein's *Candide*’, University of the West of England.
- Mateo, Marta (2008) ‘Anglo-American Musicals in Spanish Theatres’, *The Translator* 14(2): 319-342.
- Mckelvey, Myles (2001) ‘Translating the Musical *Les Misérables*: A Polysystemic Approach’, MA dissertation, Montreal, Quebec: Concordia University.
- Nassiboullina, Lira (2011) ‘Comparative Analysis of the French, English, and Russian Versions of the Musical *Notre-Dame de Paris*’, MA dissertation,

- Montreal, Quebec: Concordia University.
- Nord, Christiane (1991)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Theory, Methodology, and Didactic Application of a Model for Translation-oriented Text Analysis* (Christiane Nord and Penelope Sparrow, trans), Amsterdam/Atlanta: Rodopi.
- Nord, Christiane (1997) *Translation as a Purposeful Activity. Functionalist Approaches Explained (Translation Theories Explained)*, Manchester: St. Jerome.
- Oh, Hyun Joo and Young Chan Kim (2014) 'Localizing Licensed Musical: A Case Study of K-Musical', *Korean Journal of Communication Studies* 22(4): 125-138.
- Oittinen, Riitta (1995/2006) 'The Verbal and the Visual: On the Carnivalism and Dialogics of Translating for Children', in Gillian Lathey (ed.) *The Translation of Children's Literature: A Reader*,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84-97.
- Osolobě, Ivo (1992a) *Mnoho Povyky pro Sémioiku. Ne Zcela Uspěšný Pokus o Encyklopedické Heslo Sémiotika Divadla*, Brno: Agency G.
- Osolobě, Ivo (1992b) 'On the Three Frontiers of Theatrical Freedom: The Liberated Theatre of Voskovec & Werich in Prague, 1927-38', in Herta Schmid and Jurij Striedter (eds) *Dramatische und theatralische kommunikation. Beiträge zur geschichte und theorie des dramas und theaters im 20. Jahrhundert*, Tübingen: Gunter Narr, 238-252.
- Oxford Living Dictionary. Musical Theatre. Available at [https://www.lexico.com/en/definition/musical\\_theatre](https://www.lexico.com/en/definition/musical_theatre).
- Rastier, Francois (1972) 'Systématique des Isotopies', in Algirdas Julien Greimas (ed.) *Essais de Sémiotique Poétique*, Paris: Larousse, 80-106.
- Rastier, Francois (1987) *Sémantique Interprétativ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Russell, Zachary Evan (2018) 'Translating Broadway: the Translation of Musical Theatre into Spanish', MA dissertation, Barcelona: Pompeu Fabra University.
- Snell-Hornby, Mary (1988) *Translation Studies: An Integrated Approach*,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nell-Hornby, Mary (2006) *The Turns of Translation Studies - New Paradigms or Shifting Viewpoints?*,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Sorby, Stella Lanxing (2014) 'Translating Western Musicals into Chinese: Texts, Networks, Consumers', PhD dissertation, Hong Kong: Hong Kong Baptist University.
- Tarasti, Eero (1994) *A Theory of Musical Semiotics*,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 White, John D. (1994/2003) *Comprehensive Musical Analysis*, Lanham, Maryland: Scarecrow Press.
- Wikipedia. Musical Theatre. Available at [https://en.wikipedia.org/wiki/Musical\\_theatre](https://en.wikipedia.org/wiki/Musical_theatre).
- Zenta, Agnieszka (2008) 'Yes, No Nurse! Translating a Dutch Icon for the American Musical Stage', MA dissertation, Netherlands: Utrecht University.

[Abstract]

## **Musical Theatre Translation Research: Looking Back and Moving Forward**

Hong, Jungmin  
(Dongguk University, Seoul)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end of research on musical theatre translation in South Korea and overseas, and to suggest the main focus of future research. This attempt will ultimately help the research on musical theatre translation build on the industrial and academic momentum and therefore position itself as an independent sub-discipline within Translation Studies. Literature review suggests that musical theatre translation has been under-researched in terms of quantity, but the topics, methods and theoretical backgrounds has laid the basic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both at home and abroad. Limitations and suggestions in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the specificity of the musical theatre genr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or culture's musical theatre industry and meta-research.

▶ **Keywords:** musical theatre translation, musical theatre translation research, musical theatre genre, musical theatre industry, meta-research

▶ **주제어:** 뮤지컬 번역, 뮤지컬 번역 연구, 뮤지컬 장르, 뮤지컬 산업, 메타 연구

홍정민

동국대학교 서울캠퍼스 영어영문학부 영어통번역학과 조교수

drew97@dongguk.edu

관심분야: 뮤지컬 번역, 뉴스 번역, 전문 번역 교육

논문투고일: 2020년 2월 10일

심사완료일: 2020년 3월 1일

게재확정일: 2020년 3월 11일